## 코닥, 토드 알 비거 제품마케팅 총괄이사 기자간담회 개최

# 소노라XP 판재 소개 및 국내 론칭 발표

**토드 알 비거 코닥 제품마케팅 총괄이사가 지난 9월 4일 한국코닥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드루파2012에서 선보인 코닥 소노라 XP 무현상 판재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채영 한국코닥 플레이트 총괄이사도 함께 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 소노라XP는 어떤 제품인가?

드루파2012에서 첫 선을 보인 소노라XP는 1세대 써멀 다이렉트 무현상 판재에 이은 2세대 무현상 판재다. 이미 전세계 인쇄사들이 코닥의 써멀 다이렉트 무현상 판재의 운영비용 절감과 환경적 영향이 가져오는 이득을 이미 체감하고 있다. 소노라XP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써멀 다이렉트 판재보다 모든 면에서 향상된 제품이다.

우선 현상기와 현상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변수가 많은 현상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더 나은 환경에서 현상과정을 컨트롤하고, 현상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없앨 수 있다. 현상과정을 없앰으로써 빠른 이미징 속도와 일관된 품질을 구현해 생산성을 강화했으며, 효율성 증대로 인쇄기 대기시간을 줄였다. 특히 새로 무현상 출력기를 도입할 예정인 사람은 통상 4천만~5천만원인 현상기를 사지 않아도 되므로 현상을 위한 설치 공간, 에너지, 폐수처리비용 등이 필요없다.

프레스 레디 기술은 매엽을 기준으로 4~6장의 준비인쇄단계만 거치면 찌꺼기가 없어져 인쇄기나 약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게다가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확대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고, 보다 빠른 이미징 속도, 더 높은 AM과 FM 해상도, 더욱 강한 플레이트 이미지 콘트라스트와 프린트 성능 확대로 품질도 매우 향상됐다. 또한 기존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세팅이나 잉크 및 파우더, 알콜 등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친환경제품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친환경제품이 비용을 절감하게 해준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소로나XP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고객이 어려울 때 운용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소노라XP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써멀 판재는 시간당 40장을 출력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20장 정도만 출력되는 등 생산성이 낮았다. 그러나 이 제품은 40장 기계면 40장이, 20장 기계면 20장이 나온다. 또 일반판은 화선부와 비화선부가 차이가 없어 판재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소노라XP는 화선부와 비화선부의 차이가 명확해 마젠타판인지 흑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다. 잠상이미지가 눈에 확연히 들어와 밑에 노트할 수도 있다.

둘째, 내쇄력이 뛰어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오프셋 패키징, 적은 부수의 UV인쇄, 매엽 및 윤전 인쇄에서도 뛰어난 인쇄성능을 구현한다.

이전의 무현상판재는 5만부가 최대였지만, 이 제품은 매엽인쇄 10만부, 윤전인쇄 20만부, 오프셋 패키징 5만부까지 인쇄할 수 있어 일반적인 인쇄물은 모두 커버할 수 있다. 이외에도 UV인쇄는 일반적으로 1천~2천부가 대부분이지만 1만부까지 인쇄가 가능하다.

사용하는 판재두께도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0.15mm, 0.2mm, 0.3mm, 0.4mm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 경쟁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요즘 인쇄는 장통이 없어지고 단통으로 다양한 인쇄작업을 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운용비용은 늘어나지만 인쇄경기는 어려워 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소로나XP는 판재제작에 소요되는 현상약품, 물, 에너지, 폐기물이 필요없을 뿐 아니라 재활용된 종이나 소이잉크, 무알콜 습수액과 함께 친환경인쇄를 가능하게 한다.

타사의 경우 스틸현상기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현상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운영비용과 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왜 절감하는가? 아예 없앨 수 있다. 우리 제품은 말 그대로 무현상이다.

특히 현상기가 없으므로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 유럽이나 미국 등 인쇄선진국에서도 청소하는 것을 귀찮아해 한달 동안 청소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하지만 찌꺼기가 발생하면 인쇄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현상기 관리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현상기를 1주일에 1회 2~3시간 정도 청소를 한다. 청소가 필요없는 소노라XP는 이 시간을 고객관리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토드 알 비거 코닥 제품마케팅 총괄이사

임채영 한국코닥 플레이트 총괄이사

### 엄격한 빛 조절이 요구되는데?

소노라XP는 D65 하얀 빛에서는 1시간, G10 노란빛에서는 24시간까지 빛에 견딜 수 있다. 간지가 있으면 더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두산동아의 경우 판이 나오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간지를 끼워 테이핑해 박스에 보관한다. 인쇄사에 가서도 하루 이상 판을 보관하지 않지만 보관하더라도 박스에 보관하면 상관없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사에서 사용하는 네가티브판 역시 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사용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판재를 커다란 박스로 덮어놓는 등 각 사별로 사용하는 노하우가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행을 바꾸고 빛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빛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되는데, 프리프레스룸에 노란빛을 설치하는 것은 그리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설치할 수도 있고 고객이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무현상 판재의 사용률은 어떠한가. 아시아지역의 무현상 판재 전망은?

해마다 무현상판재가 사용되는 비율이 45%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써멀 판재를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해 연간 30만~40만㎡에 이른다. 이것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닌데, 이 지역도 소로나 판재로 바꾸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등 다른 아시아지역에서도 친환경과 관련된 환경규제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무현상 판재의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2~3년 안에 전체 판재시장의 35%까지 소로나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래된 현상기를 사용하는 업체나 프리미엄 판재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소로나 판재 사용을 권한다. 한국에서도 하반기에 소로나XP를 론칭할 예정이다.